

게티스버그 모지 봉헌식에서 한 연설

지금부터 八七年전, 우리 조상은 이 대륙에, 〈자유〉속에서 태어난, 그리고 만민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신조를 위해 모든것을 바친, 새나라를 창건했습니다.

현재 우리는 일대 시민전쟁에 휩쓸려, 이 나라가, 혹은 또 그와 같이 태어나서 그렇게 바친 어느 나라든지, 길이 존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. 우리가 이 시기에 일국을 마주대고 서있는 곳은 그 전쟁의 격심한 싸움터 복판입니다. 우리는, 이 나라의 생명을 지키려고 자기 목숨을 이곳에 희생한 사람들의 마지막 안식처로서, 그 싸움터의 일부를 봉헌하고자 모였습니다.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, 지극히 타당하고 적절한 일입니다.

그러나 좀더 큰 뜻에서 보자면, 우리로서는 이 땅을 바칠 자격이 없습니다. 성별하지 못하고, 성화하지 못합니다. 생존해 있거나 고인이 되었거나, 여기서 싸운 용사들이 이미 이 땅을 거룩하게 했으며, 우리의 미약한 힘으로는 거기가 가감을 할 도리가 없습니다. 세계는 우리가 지금 하는 말을 별로 알지 못할 뿐더러, 오래 기억하지도 않을 것입니다만, 그 용사들이 여기서 이루어 놓은 일만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. 이 땅에서 싸운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토록 훌륭한 자진해온, 그 미완성의 사업을 위해 이제 여기 헌신해야 함 자는 차라리 살아있는 우리들 자신입니다. 실상 우리들이야말로 우리 앞에 남아있는 위대한 과업을 위해서 몸을 바쳐야 할 것입니다. 그것은 죽, 이 명예스러운 전몰용사들이 최후의 피 한방울까지 흘려가며 충성을 다한 그 대의명분에 대해서, 우리가 그들의 뜻을 받들어 한층 더 열성을 기울여자는 것입니다. 또한, 이 전몰용사들의 죽음이 정녕 헛되지 끝나지 않도록 우리가 여기서 굳은 결심을 하자는 것입니다. 또 이 나라로 하여금, 주님 밑에서, 새로 자유를 탄생하게 하자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인민을 위해, 인민이 다스리는, 인민의 정치가 이 지상에서 멸망하지 않게 하자는 것입니다.

一八六三年 十一月 十九日

一 에이브라함 링컨
(고원번역)